골드, 실버: 중앙은행 수요는 여전히 견조

최근 금 투자자들의 관심은 새로운 의문에 집중되고 있다.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. 중앙은행의 금 수요는 금 가격 상승의 주요 지지 축 중 하나였고, 글로벌 외환보유액은 2014 년 이후 사실상 정체 상태이며, 일부 외환보유액 운용기관들은 금 보유 비중에 대해 특정 목표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. 예를 들어, 폴란드 중앙은행은 전체 외환보유액의 20%를 금으로 운용하는 전략적 목표를 명시했고, 필리핀 중앙은행(BSP)은 8~10% 수준의 '이상적인 비율'을 언급한 바 있다. 그렇다면 과거의 금 매입과 금의 실질 가격 상승을 감안했을 때, 이들 보유기관들이 향후 금 매입 속도를 줄일 수 있고, 그 결과 투자 수요의 핵심 축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일까?

이와 맞물려 금은 최근 이스라엘-이란 간의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전통적인 안전자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. 해당 프리미엄은 갈등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거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라졌다.

이러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자료로, 세계금협회(World Gold Council)의 중앙은행 금보유 조사 결과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. 이 조사는 2 월 25 일부터 5 월 20 일까지 진행되었으며, 현재 전 세계 외환보유액 중 금의 비중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보여준다. 오히려 반대다. 올해 조사에서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인 43%의 응답자가 "향후 12 개월 내 자국의 금보유를 늘릴 계획"이라고 답했으며, 95%는 "전 세계적으로 금보유가 증가할 것"이라고 응답했다. 이는 금에 대한 중앙은행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시사한다.

한편 은 가격은 여러 요인의 결합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. 첫째,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GDP 가중 산업생산 성장률이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, 둘째, 4 월 초 저점 이후 금 가격의 반등, 셋째,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. 이로 인해 은 가격은 3 분기 목표치인 온스당 35 달러를 넘어섰고, 2025 년 4 분기 목표치인 36 달러도 무난히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

자금 흐름 측면에서도, 실버 ETF 의 순매수는 2020 년 이후 가장 강한 지지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. 향후 은 가격의 강세는 연말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, 2026 년 금 가격 목표치인 온스당 3,700 달러를 고려할 때, 은 가격 역시 내년에는 40 달러에 근접할 수 있는 강력한 논거가 된다고 판단한다.